

“‘키우는 맛’ 있는 배우 되고 싶어요”

최근 종영 JTBC ‘미스 함무라비’ 김명수
“판사 역할 발음 뭉개지는 부분 아쉬워”
아이돌 배우로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 것



“호평 감사드리지만 저 스스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저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JTBC 월화극 ‘미스 함무라비’에서 원주주의자 판사 임바른을 연기한 가수 겸 배우 김명수(26)를 최근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서 만났다. 드라마가 거의 사전제작으로 진행된 때문인지 김명수는 어느새 진중하고 심각한 임바른의 모습을 벗고 밝은 27살 청년으로 돌아와 있었다. “저희 드라마는 90% 정도 사전제작이었어요. 다 찍고 나서 보니까 ‘저때 내가 저런 장면을 찍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었죠. 사전제작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생방송 촬영과 달리 피드백 받고 연기 수정은 못하는 대신 헛쓸리지 않는 장점도 있었죠.”

임바른에는 실제 김명수의 모습이 많이 투영됐다고 한다. 그는 “작가님(문유석 판사)이 임바른 성격을 실제 저와 비슷하게 써 주셨다. 저랑 대화를 많이 하면서 저를 임바른에 대입하려고 노력을 해주셨던 것 같다”며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저를 임바른으로 바꾸셔서 좋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처음 도전해보는 법정극, 그리고 판사 역할에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김명수는 털어놨다. “법정 드라마는 대사 전달이 중요한데, 제가 감정이 올라왔을 때 발음이 뭉개지는 부분이 매우 아쉬웠죠. 판사 역할을 하기 위해 법원에 가서 배석판사 일하는 곳을 직접 봤어요.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민사재판, 형사재판도 보고 법정용어 분석도 했어요. 저희 세트장이 실제 법원과 매우 비슷해서 촬영이 수월했죠.”

극 중 임바른은 박차오름(고아라 분) 판사를 좋아하지만, 둘은 쉽게 이어지지 않았다. 판사들의 연애담보다는 무거운 사회적 의미를 더 많이 담은 작품이었다.

김명수는 러브라인이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이 아쉽지는 않다”고 웃었다. “다른 법정극은 ‘재내는 일은 안 하고 연애만 하나?’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미스 함무라비’ 원작 책에도 연애 얘기는 안 나와요. 대본에 풀어낸 내용이 많기도 했고요. 멜로가 없어서 좋아하시는 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임바른이 박차오름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동경이 사랑이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어렸을 때는 나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서 동경했던 것 같고 판사가 돼서 만났을 때는 임바른이 회피하고 싶었던 것을 행동해 바꾸려고 했던 부분에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작중에선 드러나지 않지만 임바른은 모태솔로인 것 같거든요. (웃음) 임바른 안에 없었던 부분을 차오름에서 보고 성장한 거죠.”

함께 젊은 판사들을 연기한 배우들과의 호흡도 자랑했다. “고아라 씨가 저보다 누나지만 극에 몰입하기 위해 촬영하는 도중에는 누나라는 말을 아예 안 했어요. ‘오름아’라면서 편하게 대했죠. 류덕환 씨한테는 형이라고 불렀죠. (웃음) 덕환이 형은 편안하게 상대의 연기를 끌어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덕환이 형과 할 때는 애드립이 많아요.”

김명수는 임바른과 마찬가지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 김명수의 목표는 바로 인피니트 엘로썬은 인지도를 김명수가 이기는 것이었다. 스스로도 힘들 것이라고 예상할 정도로 큰 꿈이었다. “아직 저는 많이 부족하죠. 만족하는 순간 저는 끝이라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평도 많긴 하지만 저는 저를 볼 때 단점을 먼저 찾게 되거든요. 연기를 계속할 것이지만, 아이돌 출신이라는 선입견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연기 계속하면서 대중에게 ‘제가 더 잘할 수 있어요’라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미스 함무라비’를 통해 저에 대한 시선이 조금은 바뀐 것 같아요. 앞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이 친구는 키우는 맛이 있다’는 ‘팬션맘’의 마음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요.” (웃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해보고 싶은 역할도 많다. “차기작으로 어떤 작품을 할지 우선 대본을 계속 보고 있어요. 가수로서 한국이나 일본 솔로 앨범도 준비 중이고요. 국내 여행을 좀 다녀면서 쉬기도 할 생각이예요. 다양한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현대극, 사극, 로맨티 코미디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저에게 어울리는 것 같으면 해볼 생각입니다.”

/연합뉴스

유세운 “신곡 허락해 주세요”

‘내 똥꼬는 힘이 좋아’ 방송 불가에 항의 퍼포먼스



개그맨 겸 가수로 활동 중인 유세운이 자신의 신곡이 지상파 3사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자 항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17일 유세운 소속사 코엔스타즈에 따르면 유세운은 지난 14일 오후 1시 30분 자신의 신곡 ‘내 똥꼬는 힘이 좋아’가 방송사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자 방송사들이 모인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항의 꽃말을 들고 나섰다. 유세운의 이번 신곡은 그의 아들이 즐겨 부르던 국악 동요 ‘유가송’을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EDM)으로 리메이크한 곡이다. 유세운은 뮤직비디오 속 의상을 입고 가슴에는 방송 불가 판정에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꽃말을 들고 거리를 활보했다. 이번 시위에는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참여한 슈퍼주니어 신동이 함께했으며, 올 하반기 데뷔하는 신인 걸그룹 핑크팬티지도 두루마리 휴지를 활용한 댄스 퍼포먼스를 벌였다. 자신의 SNS를 통해 시위 상황을 알린 유세운은 “저의 노래를 허락해주시는 방송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노래하고 최선을 다해 춤추겠다”라며 “똥꼬’는 항문을 귀엽게 이르는 우리말이다.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이, 생활력 만렙 ‘또순이’로 복귀

KBS 주말극 ‘아름다운 내편’ 출연



가수 겸 배우 유이(본명 김유진·30)가 MBC TV 주말극 ‘대립남편 오작두’에 이어 다시 한 번 주말극 사냥에 나선다.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는 유이가 오는 9월 ‘갈이 살래요’ 후속으로 방송할 KBS 2TV 새 주말극 ‘아름다운 내편’에 출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드라마는 한 여자가 키워준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닌 사실을 알고 뒤이어 그 부모가 살인자임을 알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진실을 밝히려는 내용을 담는다. 극중 유이는 낙담하지 않은 가정형편 속에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야무진 ‘또순이’ 김도란을 맡는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찬란한 법상 스페셜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검법남녀(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비록(재) 50 UHD 숨터(재)	00 당신의 하우스헬퍼(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라디오스타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테라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타치 인 50 한국인의 밥상(재)	00 속보이든TV 인사이드(재)	45 TV속의 TV	55 닥터 365
2	40 와이드 코리아 플러스(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45 헬로킴지 아하! 동물탐험대 2	00 뉴스브리핑
3	05 시사기획 창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프리파라 3 55 뽀뽀보 모도야 놀자 스페셜	
4	00 시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비밀과 거짓말(재)	00 영재발굴단(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꼬미탐정 토비와 테리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5 MBC 뉴스 20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0 생방송 빛날	00 닥터 365 0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아리었다 55 지식 토크쇼
7	00 KBS 뉴스 7 35 미니다큐	50 인형의 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00 집중인터뷰 이사람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UHD 숨터	00 당신의 하우스헬퍼	00 이리와 안아줘	00 훈남정음
11	00 KBS 뉴스라인 40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어워즈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로맨스 패기치 1~2부
12	55 인간극장 스페셜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40 스포츠 다이아리 5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명란 장조림과 오이지 냉국>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자연의 색 중국 주자이거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15 엄마 까투리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7:30 뽀롱뽀롱 뽀로로
06:20 세계테마기행(재) <언제나 영화처럼, 캄보디아>	12:10 EBS 초대석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5
07:00 옹감한 소방차 레이	13:00 지식채널e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화산섬의 비밀
07:30 꼬마버스 타요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9:30 EBS 뉴스
08:00 당동당 유치원1~2	13:4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재)	19:50 초이슈
08:30 미니특공대 X	14:30 코코몽3	20:40 세계테마기행 <신들의 섬, 비누아투 3부 지구의 심장 알브림>
08:45 랄랄라 뿌우	15:00 마사와 꿈 스페셜	21:30 한국기행 <대문 밖 비경 3부 가리왕산 삼층사>
09:00 엄마 까투리	15:15 파프리카	21:50 EBS 다큐프라임
09:30 원더볼즈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2:45 극한직업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3:55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10:30 한국기행(재)	16:15 옹감한 소방차 레이	
	16:30 랄랄라 뿌우(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子 36년생 일상에 충실하다보면 특별한 이익이 있을 것이다. 48년생 상호적인 관계에 신경 써라. 60년생 중요한 일을 단행해도 무리가 따르지 않는 날이다. 72년생 갑작 놀랄 정도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84년생 선택의 폭이 커진다. 행운의 숫자 : 16, 32</p>	<p>午 42년생 기초에는 전혀 변함이 없으리라. 54년생 빨리만 하려 하지 말고 정확히 행하는 것이 이익이리라. 66년생 이체로운 세계를 접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78년생 안심해도 된다. 90년생 시간과 공간적 한계를 통감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2, 99</p>
<p>丑 37년생 간단명료한 것이 효과적이다. 49년생 보기에는 시원찮았던 것이 한 몫 하리라. 61년생 모순점은 확실히 배제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본다. 73년생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서 아쉽다. 85년생 전혀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이익을 본다. 행운의 숫자 : 15, 30</p>	<p>未 43년생 형식도 중시해야 할 때가 되었다. 55년생 방향을 잘 잡아야 할 시점임을 알라. 67년생 소망 했던 바를 이루리라. 79년생 소임은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느니라. 91년생 쓸 곳은 많은데 없어서 곤혹스럽기 그지없다. 행운의 숫자 : 50, 52</p>
<p>寅 38년생 길성이 비추면서 흥이 절로 나리라. 50년생 불안 전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된다. 62년생 추호도 변경하려 들지 말라. 74년생 유절 북돋울 노릇이다. 86년생 하나의 이권 아래에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모여들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5, 74</p>	<p>申 44년생 중용의 도를 지키자. 56년생 하나의 기쁨과 함께 또 다른 부담감도 생긴다. 68년생 가까 판국에서 진짜가 파문하는 애석함이 보인다. 80년생 당당한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92년생 핵심적 대상에 집중하라. 행운의 숫자 : 92, 88</p>
<p>卯 39년생 일장일단이 있음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지혜롭다. 51년생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릴 것이다. 63년생 흥내 내다가는 참으로 우스운 꼴이 되리라. 75년생 취약점이 보이니 서둘러 보완하라. 87년생 불필요한 걱정은 심신을 쇠잔케 할 뿐이다. 행운의 숫자 : 61, 95</p>	<p>酉 45년생 결과적으로 인내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57년생 민첩해야겠다. 69년생 주된 일을 도모해야 한다. 81년생 불변하거나 부당할 것은 개선해야 효과를 본다. 93년생 어떻게 처세하느냐에 따라서 천양지차가 된다. 행운의 숫자 : 74, 51</p>
<p>辰 40년생 신경 쓰이게 하는 문제가 발생 하겠다. 52년생 여기저기 두루 살펴보는 것이 안전하다. 64년생 천태만상을 이루리라. 76년생 유대 관계를 갖는 것이 선행 되어야만 한다. 88년생 눈앞의 일에만 급급해 한다면 멀리 내다 볼 수 없겠다. 행운의 숫자 : 47, 57</p>	<p>戌 34년생 상대의 뜻에 반한다면 불만해질 수도 있다. 46년생 오해받을 수도 있다. 58년생 기본 개념을 중시해야만 하느니라. 70년생 한계를 벗어나려면 중차대한 단계를 밟아야 할 수 있다. 82년생 정성을 다 했을 때 미련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7, 39</p>
<p>巳 41년생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 53년생 처음으로 당하는 일이라서 충격이 클 수다. 65년생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려면 해안이 생길 것이다. 77년생 연계시켜서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89년생 가치를 극대화시키자. 행운의 숫자 : 60, 84</p>	<p>亥 35년생 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7년생 곳마다 상사로움이 있다. 59년생 첫 번째의 것이 가장 실속 있고 유력하다. 71년생 형식적인 면은 멀리하고 실질적인 점을 중시해야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83년생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나 염려된다. 행운의 숫자 : 43, 01</p>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